

2023. 1. 16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월 15일 12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

생 산 부 장	어 용 선	02-3146-1301
생산관리과장	김 형 준	02-3146-1310
담 당 자	김 윤 영	02-3146-1312
관련 누리 집	<a href="http://arisu.seoul.go.kr">http://arisu.seoul.go.kr</a>	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: 4쪽

### 서울시, 식수난 겪는 완도군에 '병물 아리수' 보낸다..남부 지역 가뭄 극복 동참

- 제한 급수 겪는 완도 금일도 3,559명 주민 1주일치 식수 분량...1만병 지원
- 남부 도서 지역 가뭄 극복 '먹는 물 기부 릴레이'에 서울시가 첫 주자로 나서
- 19일(목) 금일도까지 직접 전달 예정...향후 식수난 계속되면 추가 지원 계획

- 서울시가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'병물 아리수' 1만 병(2ℓ)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(월) 밝혔다.
  - 지난해 전남 지역은 전국으로 기상관측이 확대된 1973년 이래 가뭄 일수 최다를 기록하며 반세기 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.
  -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생산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'병물 아리수'라는 이름으로 단수·재난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.
- 이번 지원은 남부 도서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'먹는 물 기부 릴레이'의 일환으로,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가장 먼저 참여하며 그 시작을 알린다.
  - '먹는 물 기부 릴레이'는 남부 도서지역의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먹는 물을 기부하는 운동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은 생수를 구입하거나 병입 수돗물을 생산해 지정된 지역에 직접 전달하여 참여한다.

- 병물 아리수가 전달될 전남 완도군 금일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 ‘2일 급수, 4일 단수’의 제한 급수를 시행 중에 있다. 서울시가 지원하는 병물 아리수(2ℓ) 1만 병은 3,559명의 금일도 주민이 1주일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다.
  - 병물 아리수는 마트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2리터 6개들이 포장으로 약 1,667묶음이 19일(목)에 완도군 금일도 내 보관창고로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.
  
- 시는 앞으로도 가뭄이 지속돼 남부 도서 지역에 제한 급수가 해제되지 않는 등 먹는 물이 부족할 경우, 병물 아리수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.
  
- 그동안 서울시는 해외의 수해·지진 피해 지역은 물론 국내의 가뭄·집중호우·대형산불 등 재난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적극 지원해왔다. 2019년부터는 단수나 재난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만 제한 공급하고 있다.
  - ▲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▲ 2009년 대만 남부 태풍 피해복구 ▲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 ▲ 2011년 일본 동북부 대 지진피해 복구 등 해외 재난 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한 바 있다.
  - 최근에는 ▲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고성군·강릉시·동해시 ▲ 2020년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철원(강원도)·남원(전북)·곡성(전남) ▲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지역 등에도 지원했다.

<국내 재난 피해 지역 '병물 아리수' 주요 지원 현황>

구 분	2019년	2020년	2022년
대 상 지	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(고성군, 강릉시, 동해시)	집중 호우피해 지역 (강원도 철원, 전북 남원, 전남 곡성)	경북 산불피해 지역 (경북 울진)
지 원 량	병물 아리수 3만5천 병	병물 아리수 2만 병	병물 아리수 5천 병

-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“서울시는 국내외 재난 상황으로 먹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앞장서서 병물 아리수를 지원해왔다”며 “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군 금일도 주민들에게 서울의 아리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▲ 식품안전경영시스템(ISO 22000)을 인증 받은 서울의 아리수  
(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 병물 생산시설)



▲ 집중호우 피해지역 병물 아리수 지원(2020년)